

One team
One dream
One heart

ORCHEM

ORchestra
2026 | Vol.20
www.orchem.com



ORchestra



One Team One Dream One Heart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의 언어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를 바탕으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발행처 (주)오알켄
 발행일 2026년 4월 1일 (통권 제 20호)
 편집/디자인 김정아
 기자단 ORCHEM(본사) 김성범, 임미연
 ORCHEM(중국법인) 莫秋玉 Mo qiu yu
 ORCHEM(베트남법인) Phùng Thị Thanh Nhân
 ORC Solution 박승영, 김준용
 대표전화 031-488-0600
 홈페이지 www.orchem.com

CONTENTS

01 We are ORCHEM	... ● ...	03 ... 주미연 이사 Interview 07 ... 신규 입사자를 소개합니다!
02 Inside ORCHEM	... ● ...	09 ... 2026 Vision Drawing 11 ... 2026 O!pening day 17 ... 해외법인 우수직원 Interview 23 ... 중국법인 송년회 25 ... 베트남법인 1Q 소식 27 ... 오알켄 펀치왕 대회 31 ... 볼링 동호회 33 ... 베트남 출장시 꼭 먹어야 하는 과일[2탄] 35 ... 요즘 커리어 트렌드 용어와 의미
03 ORCHEM-NESS	... ● ...	
04	... ● ...	38 ... O!News 40 ... O!Quiz

We are
ORCHEM

One Team

우리는 한 팀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도전하며 성장해 갑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소통하고 협력합니다.
한 개인의 특출한 역량에 아닌 상호보완적인 우리의 역량으로 완벽한 성과를 이뤄냅니다.



제조센터 & 환경안전팀 주미연 이사님 Interview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제조센터와 환경안전팀을 맡게 된 주미연입니다. 2005년 1월 오알켄 입사 이후 연구소, 품질, 제조, 환경안전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올해 구미공장에서 본사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먼저 임원 승진 축하 드립니다! 본인께도, 또 가족에게도 행복한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요! 오프닝데이 때 가족들의 축하 영상 예상하셨는지, 또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축하 영상은 전혀 예상하지 못해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라 순간 울컥하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 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Q. 사원부터 시작해서, 임원까지 올라가는 이 일이 오알켄에도 굉장히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니어 시절의 본인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주니어 시절의 저에게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지금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지금의 경험을 충분히 쌓아가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배움과 시행착오가 더 단단한 기반이 되고, 그 과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자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오알켄 초창기부터 커리어를 쌓아 오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간의 경험을 돌아볼 때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순간과 또 어려웠던 순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몇 해 전 구미공장이 최우수 부서상을 수상했던 순간이 가장 자랑스럽게 기억에 남습니다. 본사와 떨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 온 과정이 인정받는 것 같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했던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조직의 협력과 끈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Q. 지금 돌아보면 그 경험이 어떤 의미로 남아 있나요?

지금 돌아보면 그 경험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 함께하는 힘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구성원들이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던 결과였고, 그 과정 자체가 조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Q. 이제는 리더로서 오알켄을 이끌어 가고 계신데,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소통과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사님이 누군가의 롤 모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알켄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여전히 배우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에게는 조금해하지 말고, 지금 맡은 일과 경험을 충분히 쌓아가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작은 성취들이 결국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을 믿고, 조직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신규 입사자를 소개합니다!

기획/인터뷰. 사내 기자단 김성범 연구원

입사한 지도 벌써 반년이 되어가는 신입사원분들! 막내로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겠지만, 나름의 방식을 찾아가며 조금씩 회사 생활에 적응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익숙해진 오알켄 생활! 요즘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았습니다.

신규 입사자 (공채 12기)

김다솔, 박흥의, 송서영, 이윤세, 이제건, 최재혁, 박흥영, 현원우(구미), 박성환



바꾸고 싶은 딱 한 가지!

출퇴근 시간

(feat. 출근 시간 앞으로 당기기, 집에서 1분 거리로 옮기기(?)...)

회사생활 각오 한 마디!

김다솔 훌륭한 선임, 책임님 밑에서 열심히 배워 제 몫을 하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박흥의 앞으로 칭찬도 듣고 조기 퇴근도 하고 연봉도 인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흥영 지금까지 5개월정도 되었는데, 정말 다들 친절하시고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윤세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고객사 2개 이상 수주를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건 훌륭한 선임분들께 열심히 배워서 성장하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최재혁 열심히, 빠르게 배워서 개발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사에게 칭찬 듣기

조기 퇴근

<p>김다솔 박흥영 이윤세</p> <p>조기 퇴근은 마음만 먹으면 반차를 쓸 수 있지만, 칭찬을 듣는 건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p>	VS	<p>박흥의 이제건 최재혁</p> <p>100번의 칭찬 보다는 10분의 조기 퇴근..!</p>
---	----	--

연봉 +5%

휴가 +5일

<p>김다솔 박흥영 이윤세</p> <p>미래를 위한 저축을 위해 연봉 5%!!!</p>	VS	<p>박흥의 이제건 최재혁 송서영</p> <p>사회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새내기라 그런지 차곡차곡 자산을 쌓아가는 재미가 쏠쏠해요! 열심히 역량을 키워서 연차가 쌓여가는 성취감을 느껴보고 싶습니다!</p>
--	----	---

Inside ORCHEM

One Dream

우리는 고객사, 지역 사회, 임직원들에게 사랑받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임직원의 행복에서 첫 걸음을 시작해 한국 매출 1위, 총매출 2000억원, 글로벌 top3에 도달하며 모두가 사랑하는 회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2026 Vision Drawing

Together, We Build The Global No.1 Plating Company!



그간 오알켄의 5개년 목표 슬로건, 기억하시나요?

"Work-Life Balance & Leap Forward" "People are innovation" "Plating No.1" "Global No.1"

이번 2026 비전드로잉은 5년간의 목표 슬로건을 공유하고, 또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구성원들 한명 한명 직접 본인의 얼굴을 채색하고, 한 해 목표를 작성했는데요, "Be happy"라는 문구가 여럿, 눈에 띄었어요. 2026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요. 저는 "돈 많이 벌자!"를 목표로 잡았는데, 월초부터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걸 보니, 목표를 아주 잘 달성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

"Together, We Build The Global No.1 Plating Company!"

각 구성원의 얼굴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목표도 함께 잘 쌓아가는 2026년 됩시다.

2026 O!pening day

글. 사내 기자단 임미연 연구원



안녕하세요~ 어느덧 완연한 봄이 되었는데요. 쌀쌀했던 2026년 1월 15일, 본사에서 새해를 맞아 진행한 2026 오프닝데이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올해 벌써 4번째 맞이하는 오프닝데이였는데요. 오전 일과를 마치고 오후에는 행사를 위해 한국공학대학교 비즈니스센터로 넘어가기 때문에, 회사를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얼마 없는 기념일이기도 해서 더 기대되는 하루였답니다 ^_^



TOP1
이재현 대표님께서 30초 뒤에 성과급이 입금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던 모습. 멋있다..!



TOP2
공학진 연구원님 단상 2번 오르셨는데 부러웠어요.. 결혼 미리 축하드려요~



TOP3
베트남 우수 직원분들께서 한국어로 능숙하게 발표하시는 모습 (엄지 척)



O!pening day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 Top 3 를 꼽아보았어요



행사가 끝난 뒤, 고깃집에서 회식했을 때 중국 법인 직원분들과 함께 자리했던 것도 기억에 남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육회가 정말 맛있었고 배불렀어요 ㅎㅎ)

즐거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인사총무팀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축하합니다

[승진자]



임원 승진 | 주미연 이사
 수석 승진 | 김정호 수석, 노윤석 수석, 성희철 수석, 박정수 수석
 책임 승진 | 구재근 책임, 김대균 책임, 박성우 책임, 신상희 책임, 이상우 책임, 이정영 책임, 이진규 책임, 이진우 책임, 임수정 책임, 최동화 책임, 하재필 책임
 선임 승진 | 김나영 선임, 김성범 선임, 김시연 선임, 김정아 선임, 남민정 선임, 박연수 선임, 엄정인 선임, 이훈희 선임, 임창현 선임, 정준 선임, 조재형 선임, 최수진 선임, 홍채련 선임, 홍두화 선임
 기장 승진 | 김정식 기장, 유승수 기장
 기사 승진 | 윤규한 기사, 심재성 기사

[우수 동호회]



풋살 동호회 | 회장 강형욱 책임
 배드민턴 동호회 | 회장 윤규한 기사

[서전상]



R&D 부문 | 공혁진 연구원 영업/기술 부문 | 이창대 선임 관리 부문 | 윤은비 책임 현장 부문 | 김정식 기장

[해외법인 우수 사원]



베트남법인	중국법인
베트남 R&D Nguyễn Thị Bích Huệ(후예)	영업관리 莫秋玉(모추옥)
환경안전파트 Trần Thị Thu Hà(하)	생산팀 洪海中(홍해중)
인사총무 Phùng Thị Thanh Nhàn(난)	

... 해외법인 우수 직원 Interview

기획/인터뷰. 사내 기자단 莫秋玉 Mo qiu yu 사원 (중국법인), Phùng Thị Thanh Nhân 사원 (베트남법인)



중국법인 우수 사원 INTERVIEW

영업관리 莫秋玉(모추옥)

: 영업관련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및 체계 구축
프로젝트 달성을 95%
조직환경 변화에도 영업 운영의 안정성 확보

생산팀 洪海中(홍해중)

: 단기간 내 전 공정 숙련 및 제로 이슈 달성
신규 인력 교육 및 작업 표준 진파를 통해 포장 공정 생산성 향상
공정 품질 안정화 및 현장 환경 표준 유지

Q. 우선 2025 오알켄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莫秋玉(모추옥)

이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영업관리, PCN 프로젝트를 담당했는데, 오알켄의 아낌 없는 지원, 팀원들의 협력 덕분에 순조롭게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제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함께 노력해 준 팀 전체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洪海中(홍해중)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조센터 생산팀에서 계획한 생산 업무를 조율하고, 동료들과 품질과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매일의 과정들이 모여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함께해 준 팀원들의 노력에도 감사합니다.

Q. O!pening day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O!pening day는 쉽게 얻기 어려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출발 전부터 본사의 세심한 준비와, 초청 직원들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사 당일 각 본부 대표가 연간 성과와 향후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명확한 방향성과 효율적인 실행 방안이 인상 깊었고, 오알켄 전반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莫秋玉(모추옥)

승진자 수상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임원 승진 식 때 가족이 보내온 축하 영상을 함께 시청했는데, 진정 어린 따뜻한 메시지가 대형 화면에 나타나자 회의장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많은 분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오알켄이 업무 성과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삶과 감정까지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문화가 조직을 더욱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洪海中(홍해중)

회사가 승진자, 우수 직원에게 시상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에 서고, 쏟아지는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회사가 직원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Q. 공식 일정 외에도 기억에 남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면?

일정 마지막 날에는 본사에서 초청 직원들을 위해 서울 투어를 특별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쇼핑도 하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활기를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각지에서 모인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단순 휴식이 아니라 팀워크를 다지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앞으로의 다짐을 전하자면?

莫秋玉(모추옥)

이번 본사 방문 덕에 동기부여가 됐어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오알켄에 감사드리고, 항상 인내와 지지를 보내주신 리더와 동료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알켄의 기대와 지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洪海中(홍해중)

본사 방문을 통해 오알켄의 실력과 인간미를 직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만큼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더 강해졌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알켄이 더욱 따뜻하고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베트남법인 우수 사원
INTERVIEW**

Nguyễn Thị Bích Huệ(후예)

: 연구소 시행 프로젝트 참여
제 2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최우수상

Trần Thị Thu Hà(하)

: 베트남 법규 준수로 리스크 예방
비용 절감 및 대관 활동
25년도 최우수 사원

Phùng Thị Thanh Nhân(난)

: 교육, 조직문화, 통역

Nguyễn Thị Bích Huệ(후예)

안녕하세요! R&D팀 파트장을 맡고 있는 Nguyễn Thị Bích Huệ(후예)입니다. 지난해 제2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본사를 방문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쁘고 자랑스러웠으며,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상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5박 4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오프닝데이에서 비나를 대표하여 25년 주요 활동을 주제로 발표한 경험입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또 베트남이 아닌 한국 본사에서 발표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척 긴장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대에 올라 발표를 시작하자 주변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격려 덕분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준비한 내용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에는 스스로 한 단계 성장했다는 느낌과 함께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 있는 경험이었으며, 저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어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 • 해외법인 우수 직원 Interview

Trần Thị Thu Hà(하)

안녕하세요. EHS(환경안전 파트) 담당하고 있는 Trần Thị Thu Hà(하)입니다. 이번에 비나를 대표하여 본사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기회였으며, 그동안 항상 곁에서 응원해 준 가족과 동료들, 그리고 저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경영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방문은 저에게 많은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알켄이라는 한 가족"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릴 만큼 모든 분들이 친절하고 세심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또한 본사의 시설과 인프라는 매우 현대적이었고, 체계적인 투자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장님의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업무 중 어려움이나 부담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게 해 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본사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어 비나가 더욱 크게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Nguyễn Thị Bích Huệ(후에)

안녕하세요. Phùng Thị Thanh Nhàn(난)입니다. 이번에는 비나의 우수 직원 두 분을 지원하는 통역 자격으로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점은 하(Hà)와 후에(Huệ)와 함께 준비 단계부터 방문을 마칠 때까지 전 과정을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2025년 비나의 주요 활동에 대한 발표 내용을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었으며, 본사와 중국 법인 임직원들께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본사 투어, 오프닝데이 참석, 그리고 롯데월드와 명동 방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인상 깊었지만, 특히 오프닝데이 행사에서 남기재 고문님의 말씀과 사장님의 조직문화에 대한 강연이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이를 통해 오알켄만의 고유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으며, 한 사람의 힘이 아닌 전 임직원의 공감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와 함께 성장하며, 비나의 더 큰 도약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법인 송년회 “동심동행(同心同行), 함께 가는 미래”

글/사진. 사내 기자단 莫秋玉 Mo qiu yu 사원 (중국법인)

2026년 1월 23일, 절강법인은 " 동심동행(同心同行), 함께 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경영 실적 보고와 전략 공유, 그리고 축제 두 파트로 구성하여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성과 보고 및 사업 계획 공유

이날 오후, 성과 보고 및 사업 계획 발표가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팡광레이 총괄은 이날 회의의 핵심이 되는 주요 사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으며, 각 부서 총괄,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5년 이룬 성과를 되돌아보고 2026년 공동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한 시상과 장기 근속자(10년~20년)에게 장기근속상을 수여했습니다. 구성원들의 헌신과 끈기가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임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축제

2부 행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여러 협력사와 귀빈들을 초청해 기쁨을 나누며 끈끈한 유대감과 에너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직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연출한 공연이었는데요, 진심을 담은 노래는 참여자들의 마음을 울렸고, 화려한 춤으로 청춘의 활력을 뽐내기도 했으며, 진지한 시 낭송으로 회사와 동료들 향한 깊은 애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무대가 끝날 때마다 뜨거운 박수갈채로 구성원들의 숨겨진 재능과 그간의 노력을 응원했습니다.

이어지는 경품 추첨 순서에서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며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대망의 1등이 발표되는 순간에는 숨죽였던 환호가 한순간에 터져 나왔는데요, 본사 이재현 대표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따뜻한 격려와 함께 선물과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동심동행(同心同行)”이라는 슬로건이 지리적 경계를 넘어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는 순간이자, 우리 오알켄의 응집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사는 서로의 잔을 채우며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술잔 속에 깊어진 우정과 공감대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웃음소리 가득했던 축제의 기쁨은 잠시 뒤로 하고, 우리는 다시 마음을 모아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함께합니다. 여러분, 올해 절강법인은 값진 결실과 감동을 나누며,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고한 결속을 확인했습니다. 새해에는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신뢰 속에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려 합니다. 우리만의 저력으로 써 내려갈 또 다른 성공의 페이지를 기대해 주세요.

베트남법인 10 주요 소식

글/사진. 사내 기자단 Phùng Thị Thanh Nhàn 사원 (베트남법인)



베트남법인 설립 10주년

2025년 12월, 베트남법인이 열 살이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심 없이 달려온 성장의 기록을 기념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행사 첫 시작으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레크레이션 활동이었습니다. 서로 밀어주고 또 끌어주는 활동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동료로 넘어 'One Team'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Gala 행사에서는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상식과 임직원들이 준비한 공연들이 펼쳐졌는데요,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회고 영상 시청, 성장의 주역인 우수 사원 및 팀 시상, 부서별 슬로건 발표와 공연, 경연, 밴드와 가수, 마술 공연까지 다채롭게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여정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임직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오알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공유하는 소중한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베트남법인이 써 내려갈 다음 10년의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베트남법인 25년 실적 및 26년 사업 계획 공유

2025년 주요 실적

매출: 목표 140억 원, 실적 124억 원 (달성률 86%)

동도금부문 흑자전환: 흑자전환 목표 미달, 8.5억 원 적자 기록

시장변화 대응 강화: 목표 고객사 8개 설비 증설, 실적 1개 Line (달성률 13%)

현지 역량 강화: 목표 98회, 실적 101회 (달성률 103%)



이번 1분기 미팅에서는 지난해 성과와 함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는 한편, 베트남법인 대표자가 2030 중장기 계획 및 2026년 전략 과제들을 공유하며 향후 목표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 미팅에서는 2026년에 승진한 3명의 직원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고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는 회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진행된 공식 승진 포상 행사로,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도전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본사 슬로건인 "One Team, One Dream, One Heart" 정신 아래, 오알켄 베트남법인은 "기본 역량 확보와 변화를 통한 눈높이 맞추기"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2026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ORCHEM -NESS

One Heart

명확한 꿈을 공유한 우리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이유를 이해합니다.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일을 즐길 줄 아는 오알켄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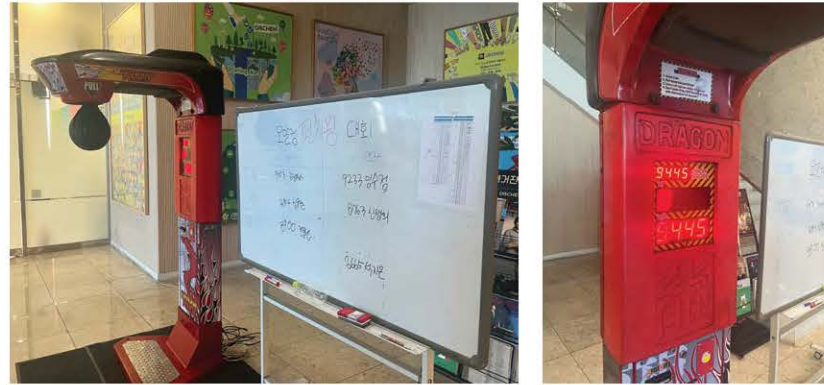
오알켄 펀치왕 대회

2월 27일 오알켄에서는 업무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내 펀치왕을 가리는 ★펀치왕 대회★

로비 한편에 설치된 펀치 머신 앞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분들, 참여를 망설이는 분들 또 동료들을 응원하는 분들로 웅성웅성했습니다.

주저하셨던 분들도 막상 대회가 시작되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여러 번 기록 세우기에 도전하기도 했어요. 참여자 한 분당 2번의 기회를 드렸는데, 기회 소진 이후에도 순위 상관없이 최고 기록 경신을 위해 여러 번 도전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린다며 오고 가며 한두 번씩 치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다죠, (본인 사무실 옆에다 세워두고 싶다고 할 정도로....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π)





오알켄 펀치왕

'펀치왕' 재무회계팀 임수정 책임 (9233점)
2등 연구소 신상희 연구원 (8763점)
3등 연구소 석지은 연구원 (8665점)

'펀치왕' 전사기획팀 심규환 사원 (8914점)
2등 전사기획팀 전용빈 선임 (8900점)
3등 인사총무팀 전인환 책임 (8897점)

대회 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된 몇 분이 계셨는데요, 결과는 대반전이었습니다!

남/여 부문 통틀어 재무팀의 임수정 책임님이 1등을 하셨어요! 무려 9233점을 기록하셨답니다. 남자 부문에서는 김남하 전무님이 1등에 등극하셨는데요, 주니어분들을 위해 기꺼이 펀치왕을 돌려주셨답니다. 그리하여!!! 8914점으로 기획팀 심규환 사원님이 펀치왕을 차지하셨어요.

사실 비공식 최고 기록도 있었어요. 기회 소진 이후, 제조팀 박재신 기사님께서 여러 번 재도전해 보시더니 결국 점을 기록하셨답니다! 왼손으로 그냥 툭 치셨던 거 같은데, 점이 나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스트레스도 날리고! 오알켄 주먹왕도 확인하는 이벤트가 마무리되었어요. 최고 기록을 달성하신 1, 2, 3위 분들께는 한우, 한돈, 배달 쿠폰 등을 증정했습니다.

펀치왕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스트레스 건강하게 해소하세요★



볼링 동호회

기획/인터뷰. 사내 기자단 임미연 연구원

볼링 동호회 회장 박연수 연구원

Q. 볼링 동호회는 어떤 모임인가요?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누구나 함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동호회!

Q. 볼링 동호회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와 볼링 동호회만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본격적으로 볼링을 치기 시작한지 이제 약 1년 정도로 얼마되지 않았지만, 스트라이크 칠 때의 짜릿함, 점수가 오르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과 볼링을 쳐보면서 확실히 다양한 사람들과 볼링을 치는 것이 훨씬 더 재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사내 볼링 동호회를 만들어서 다같이 볼링을 쳐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호회는 생긴 지 한달밖에 되지 않은 완전 신생 동호회지만, 자유로운 분위기가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Q. 회장님의 볼링 에버리지는 몇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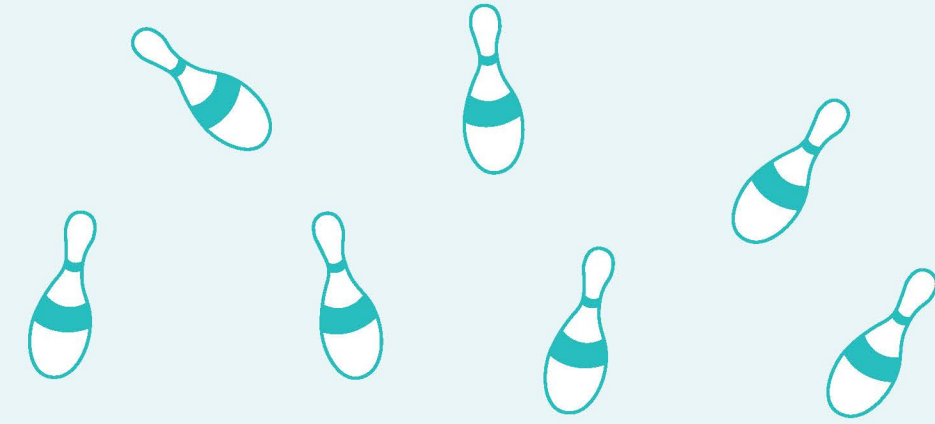
볼링 동호회 회장으로서는 많이 부족한 1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ㅎㅎ (오~~)

Q. 정기 모임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활동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한 달에 한 번 진행하고 있고, 현재 볼링 동호회 인원은 14명 정도입니다. 아직은 초반이라 보통 2게임 정도 진행하고 있고, 저번 달에는 첫 활동이니만큼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본인이치고 싶은 대로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Q. 초보자도 가입 가능한가요? 가입을 위해 필요한 역량이 있나요?

초보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필요한 역량은 무리하지 않고, 볼링을 즐겁게 치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신설되지 얼마되지 않은 동호회이다보니, 아직 부족한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볼링을 치시던 분도 좋고, 처음 쳐보시는 분도 좋고 어떤 분이든 환영합니다!



Q. 볼링 동호회의 장점!!!

우선 볼링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성취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치지 않으면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면서 실력이 성장해 나갈 때의 성취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에는 대화하기 어려운 타 부서의 팀원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것 역시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의 힐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동호회에 가입하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나요?

가장 큰 것은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또는 개인적인 스트레스 등을 직원들과 함께 볼링을 통해 해소하고,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력 향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볼링 원데이 클래스 등도 수강하고, 볼링을 잘 칠 수 있는 꿀팁 등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Q. 앞으로의 동호회 운영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볼링 동호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 목표는 모든 동호회 회원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동호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력 향상도 중요하겠지만,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분위기를 우선적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부족한 점도 개선해 나가고, 초보자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소한 이벤트 등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볼링 동호회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편안한 동호회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Q.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남녀노소, 초보자, 실력자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볼링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욱 의미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볼링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가입하셔서 즐겁게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인 PICK!

베트남 출장 시 꼭 먹어야 하는 과일

2탄

베트남은 열대기후, 비옥한 토지, 그리고 긴 해안선 덕분에 자연이 선물한 과일 천국입니다.
베트남으로 출장 오시는 임직원분들을 위해, 꼭 한 번은 맛봐야 할 제철 과일 지도를 공개합니다!

연중 과일



[코코넛 (Dừa)]

베트남의 대표적인 과일! 과육은 물처럼 시원하게, 속은 잼 등 간식으로, 껍질은 공예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능 과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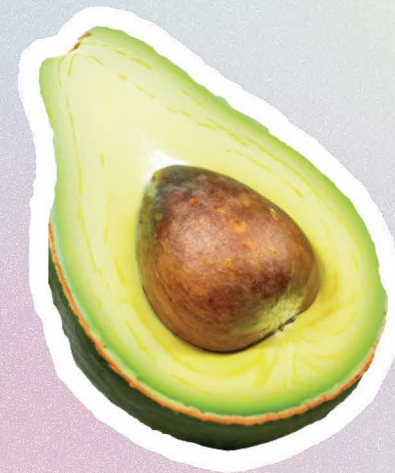
베트남식 과일 꿀 조합

TIP!

산미 있는 자몽이나 덜 익은 망고를 칠리 소금 또는 베트남식 조미 소금에 찍어 드셔보세요!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익숙한 조합입니다. 한번 빠지면 중독될 거예요!

기획/글. 사내 기자단 Phùng Thị Thanh Nhân 사원 (베트남법인)
*해당 이미지는 adobe AI를 활용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을&겨울 과일(9월~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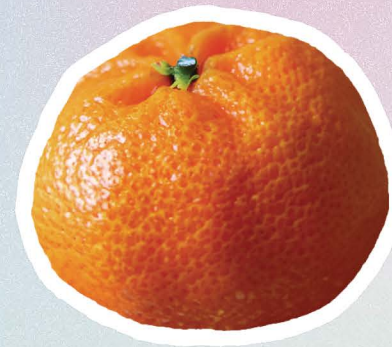
[아보가도 (Bơ)]

휴식 시간엔? 아보카도 스무디 한잔!
부드럽고 고소해서 'Chill 디저트'로 즐기기도 좋습니다



[감 (Hồng)]

살짝 떼어도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옵니다



[귤 (Quýt)]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
크기는 작아도 먹기 편하고 달콤해요



... MZ부터 퇴직까지, 요즘 커리어 트렌드 용어와 의미

기획/글. 사내 기자단 김성범 연구원

1. Job hugging

"불안한 이직보다 안전한 준비!"

불황과 고용 불안 속에서 현재 직장을 마치 꺼안듯(Hugging) 꼭 붙들고 머무르는 현상.

최근에는 만족스럽지 않은 환경이라도 현 직장에서 버티는 생존 전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게으른 안주가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영리한 '커리어 일시정지' 상태에 가깝습니다.

2. Job hopping

"성장을 위해서라면 선을 넘는다!"

경력 개발과 보상 확대를 위해 2~3년 단위로 직장을 옮겨 다니며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커리어 전략.

과거에는 한 직장에 뼈를 묻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잡 호핑은 직장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메뚜기가 뛰듯이(Hopping) 더 나은 연봉, 더 높은 직무 역량, 더 매력적인 기업 문화를 찾아 빠르게 이동하며 경력을 쌓아가는 공격적인 커리어 빌딩 방식입니다.

3. Conscious unbossing

"승진보다 '나'라는 브랜드의 성장이 우선!"

높은 직함과 관리직의 책임 대신, 실무 전문성을 유지하며 개인의 삶과 성장에 집중하기 위해 승진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는 현상.

과거에는 승진이 직장 생활의 결실이자 성공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관리자가 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의도적 언보싱'이라 합니다. 조직의 성과를 관리하는 리더보다는 자신의 실무 역량을 갈고닦는 전문가로 남기를 자처하는 선택적 커리어 로드맵입니다.

4. Micro-certification

"학위보다 강력한 '한 줄'의 실무 무기!"

방대한 이론 중심의 학위나 자격증 대신, 특정 직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세부 기술(Skill)을 짧은 기간 내에 습득하고 인증받는 교육 트렌드.

기술의 유통기한이 짧아진 4차 산업 시대에 '4년제 학위' 하나만으로는 평생을 버틸 수 없습니다. 이제 직장인들은 필요한 기술만 골라 빠르게 배우는 '나노 학습'에 주목합니다. 파이썬 데이터 분석,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디지털 마케팅 전략 등 현장에서 즉시 발휘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역량 조각들을 수집하여 자신의 가치를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5. Keeper test

"당신은 회사가 꼭 붙잡고 싶은 '키퍼(Keeper)'인가요?"

팀원이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리더가 그를 붙잡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인재의 가치를 판단하는 냉철하고도 명확한 평가법.

넷플릭스의 조직 문화에서 유래한 이 테스트는 복잡한 인사고과 지표 대신 본질적인 질문 하나에 집중합니다. 리더가 스스로에게 "우리 팀원이 내일 떠나겠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투쟁해서라도 그를 붙잡을 것인가?"라고 묻는 것이죠. 만약 대답이 "아니오(기쁘게 보내줄 것이다)"라면, 해당 팀원은 현재 조직에 최적화된 인재가 아닐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6. Soft Retirement

"은퇴는 마침표가 아닌 '쉼표'이자 전환점!"

현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전통적 은퇴 대신, 일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며 전문성을 유지한 채 경제 활동과 여유를 병행하는 '부드러운 은퇴' 방식.

이전까지는 은퇴가 '현업과의 단절'을 의미했다면, 소프트 리타이어먼트는 커리어의 단절이 아닌 속도 조절을 선택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트타임, 자문(컨설턴트), 프리랜서 등 유연한 형태로 일을 지속합니다. 이는 경제적 수입을 넘어 사회적 소속감과 자아실현을 유지하려는 '지속 가능한 인생 2막'의 새로운 로드맵입니다.

7. Office Ghosting

"사무실 안의 투명 인간, 존재감을 지우고 효율을 얻다!"

출근은 했지만 메신저 응답은 함흥차사, 회의 중엔 카메라와 마이크를 끄고 침묵하는 등 조직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의도적으로 지우는 현상.

'월급 루팡'이 대담하게 판짓을 했다면, 오피스 고스팅은 훨씬 정교하고 조용합니다. "일은 최소한으로, 책임은 제로(0)로"라는 슬로건 아래, 상사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을 만큼만 움직이며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소음 없이 사무실을 떠도는 유령처럼, 조직의 과도한 업무 요구나 감정 소모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려는 '극단적 자기방어형' 근무 태도입니다.

.. ● .. MZ부터 퇴직까지,
요즘 커리어 트렌드 용어와 의미

8. Desk Decoror

“회색빛 사무실 속, 나만의 작은 우주를 만들다”

책상을 뜻하는 데스크(Desk)와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Decorator)의 합성어. 사무실 책상을 자신만의 취향과 스타일로 꾸며 심리적 위안과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직장인.

삭막한 사무실 공간을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닌 '내가 머물고 싶은 곳'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입니다. 좋아하는 캐릭터 피규어, 반려 식물, 감성적인 조명이나 고성능 기계식 키보드 등 취향이 담긴 물건들로 책상을 채웁니다. 이들에게 책상 꾸미기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조직 속에서 '나다움'을 유지하려는 일종의 리프레시 전략

9. 에이전틱 일잘러 (Agentic Worker)

“AI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부리는 유능한 '부사수'다!”

인공지능(AI)을 단순한 검색 도구로 쓰는 단계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처럼 활용해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는 스마트한 신인류 직장인.

오로지 네이버와 다음, Google의 검색 엔진에 의존했을 당시의 일잘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다면, 2026년의 일잘러는 AI에게 제대로 일을 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AI를 비서나 부사수(Agent)처럼 활용해 단순 반복 업무를 맡기고, 자신은 의사결정과 창의적 기획 같은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합니다. 기술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지배하는 '커리어 컨트롤러'의 모습을 띠니다.

10. 리버스 멘토링(Reverse Mentoring)

“선배, 후배에게 '요즘 세상'을 배우다!”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주니어 직원이 선배(경영진/간부)의 멘토가 되어 최신 IT 트렌드, AI 활용법, MZ세대 문화 등을 공유하는 역발상적 소통 모델.

변화의 속도가 광속에 가까운 시대, 이제 '경력'이 곧 '최신 지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풍부한 연륜을 가진 시니어들이 주니어들의 디지털 감각과 트렌드 통찰력을 전수받는 현상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조직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상향 평준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O!News

2026 1분기 오알캠 소식

- 1월 5일 Paperless MES 구축 'Kick-off' 진행
- 1월 15일 2026 O!pening day 개최
- 2월 12일 2026년 1차 PCB 자격증 초급과정(GL) 합격자
연구소 김다솔, 김진년, 박홍의, 서강돈, 서민영, 심장원, 최재혁, 최다정 연구원
- 3월 6일 사내 이벤트 '오알캠 펀치왕' 대회
- 3월 16일 '뿌리기업 확인서' 취득
- 3월 30일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3월 24~26일 24~26일 CPCA Show 2026 참가

오알캠이 중국 상해에서 열린 'CPCA Show 2026'에 10부스로 참가했습니다. 직접 부스에 방문한 고객들과의 교류를 통해 오알캠 제품과 기술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 Green Pioneer Award'를 수상하며 친환경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전시회를 함께해 주신 중국법인 또 본사 임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ORchestra 20호를 제대로 읽었는지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오알캠 사보 영역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여 인사총무팀 김정아 선임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세요.

*정답자 중 4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립니다.

*모든 질문은 주관식입니다.

*모든 정답은 ORchestra 20호 안에 있습니다. 눈을 잘 떠 보세요.

1. 주미연 이사님의 오알캠 입사 연도는?

2. 신규 입사자분들이 연봉 +5% or 휴가 +5일 중 더 선호하는 것은?

3. O!pening day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TOP1은?

4. 오알캠 펀치왕 대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5. 볼링 동호회 회장님의 에버리지 점수는?

6. 베트남 사람들이 산미 있는 자몽이나 덜 익은 망고와 함께 조합해 먹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7. 인공지능을 단순한 검색 도구로 사용하는 걸 넘어 에이전트처럼 활용해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는 직장인을 지칭하는 말은?

8. 오알캠이 1분기 참여한 전시회 이름은?